



글. 이상정
/무림교역대표·한화협이사/

뒷간과 화장실 미학 '일본'

고대 일본에서는 화장실을 '가와야'라고 불렀다. 가와야는 한자로 [廁屋] 또는 [厠屋]로 표기한다. [廁屋]는 하천위에 변소를 만들어 분뇨를 그대로 강물 위에 흘러 버린 고대 일본의 관습에서 유래된 말이며, [厠屋]는 그보다 훨씬 후에 사용된 명칭으로, 사람이 사는 가옥과 떨어져 있는 구석진 곳에 변소를 짓고 사용했던 관습에서 나온 명칭이다. 따라서 후자의 명칭은 농경 사회가 정착된 후에 분뇨를 비료로 사용했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고대 일본 사람들이 하천 위에 나무를 걸치고 그 위에서 방분,방뇨했던 사실이 최근 일본의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일본 지바 현의 고대 취락지였던 수고우 유적에서는 붉은 점토층 속에 일정한 폭으로 통나무를 박고 그 위에 나무를 걸쳐 다리처럼 만든 구조물이 발굴되었다. 바로 그 근처에서 고대 헤이안(794~1192)시대 가옥의 유적이 있는 것과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때 이는 고대 도쿄 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위에 세워진 변소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 바다에서는 분석도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동남아에 남아 있는 하상 변소의 고대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하천위에 변소를 만든 경우와는 다르나 자연수를 이용해 분뇨를 하천에 버리는 '고오야산'이라는 변소도 있었다. 고오야 산은 와가야마현에 있는 한 지명으로서 원래 불교의 중심지인데 공해라는 중의 수행도장이었다. 공해는 산 위에 있는 어떤 우물에서 흐르는 자연수를 끌어들여 부엌과 변소에서 이용하고 이를 가까운 강으로 흐르게 하여 버리는 일종의 천연 수세식 변소와 수도 시설을 설치, 이용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에서는 화장실을 '고오야산'이라고도 한다.

변소의 명칭

일본에서는 변소를 '세이', '곤', '셋진', '도오수', '사이쵸', '고오가', '쵸오즈바', '간쵸', '고후쵸'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이는 모두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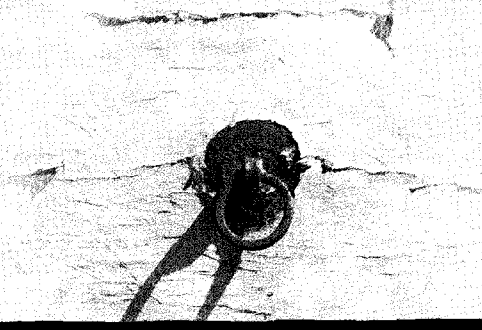
'고오가'는 원래 승방 뒷편에 있는 세면장을 뜻하는 것이지만 대개 세면장 옆에 변소가 있었기 때문에 변소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또한 '쵸오즈바'란 말도 용변을 보고난 후 손을 씻는 장소를 일컫는 데서 나온 말이다. 고오가와 쵸오즈바라는 말은 모두 에도시대부터 불리게 되었다.

일본에서 변소란 말이 사용된 것은 15세기 후반부터였다. 물론 변소라는 말의 원래 뜻은 '변을 보는 장소'라는 것이지만 한자의 [便]은 '침착해진다'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영어의 레스트 룸(rest room)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어떤 사람은 편리한 장소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변소를 뜻하는 일본어 '도이레'를 사용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서 영어의 토일렛(toilet)이라는 단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나라시대나 헤이안시대까지만 해도 수도나 도시라고 해봐도 농촌과 별 차이 없이 공지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변소를 이용하는 일없이 집주위에서 방분,방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문명국이었던 중국, 한국과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이들 나라의 풍습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때 중국의 호차, 한국의 요강등이 들어와 일부 귀족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다.

헤이안 시대 일부 귀족들은 집안 한구석에 병풍이나 발을 쳐 그 안에 칩상이라는 뚜껑이 달린 변기를 두고



이용했다. 일본인들은 칩상 안에 모래나 재를 담아 용변이 끝난 후에 그 내용물을 뜰 구석에 묻었다. 이는 중국의 의자식 변기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다. 어떤 것은 칩상 뒤에 높은 [T]형의 배관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는 귀족들이 정장을 한 채로 변을 볼 경우, 뒷옷의 뒷부분을 배관에 걸치게 해서 속옷만 내린 채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분뇨 저장소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농업이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가마구라시대에 와서부터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한 해에 벼와 보리를 두 번 수확하는 소위 이모작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는 지력감소 속도를 더욱 촉진시켰고 토지에 뿌리는 비료도 종래 일모작 때보다 배 이상이나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는 산과 들의 풀이나 나뭇잎, 소나 말의 똥을 비료로 사용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람의 분뇨까지 비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일본의 헤이안시대 말기와 가마구라 시대는 중국의 송시대로 이때 중국 남방지대의 농업기술이 일본에 전래되면서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는 법이 함께 전해졌다. 당시 중국에서는 농가 주변에 분뇨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만들고 그곳에 지붕을 씌워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 이 저장소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위를 벽돌로 쌓은 웅덩이의 형태였는데 이곳에 저장된 분뇨는 일정기간 발효된 후에 논밭에 뿌려졌다. 송나라의 이러한 분뇨 시분법을 받아들인 일본에서는 길거리나 들판에 방분,방뇨하던 습관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농가마다 변소를 만들게 되었다. 이후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인근 농민들이 직접 분뇨를 수거하게 되었고 이는 도시 위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

분소로와 노방변소

근세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은 노상에서 방뇨를 하는 버릇이 있었다. 당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노상에서 방뇨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인형으로 만들어 자기 나라에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교토에는 '분소로'라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거리가 바로 공중 화장실처럼 누구나 가서

대,소변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 거리에는 언제나 오줌,똥이 쌓여있어서 누구든 이 거리로 들어갈때에는 신고 갔던 신발을 벗고 입구에 놓여 있는 굽 높은 나막신으로 바꾸어 신고 들어가야 했다고 한다. 그 후 천황이 우연히 이 거리를 지나다 그 내력을 듣고 거리 이름을 바꾸도록 지시해서 오늘날의 금소로가 되었다. 메이지 3년 일본 정부는 '방뇨 취제의 포고'를 내렸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요코하마시내에는 83개소의 노방변소가 만들어졌다. 이 노방변소는 일본 최초의 공중 변소였는데 큰 변조를 땅에 묻고 그 주위를 판자로 막은 어설픈 것이었다.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상 방뇨의 풍습은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방변소의 개량은 계속되었고 명칭도 노방변소에서 공동변소 또는 공공 변소로 개칭되었다.

서서 오줌누는 일본 여성

에도시대 일본 교토의 여자들은 길가의 소변통에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예사롭게 소변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풍습은 메이지 시대 말기까지도 남아있었다고 한다.

여염집 아가씨, 하인을 거느린 상류층 부인들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도로변 벽을 향해 엉덩이를 내놓고 선 채로 오줌을 누면서도 부끄러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두고 비웃는 사람도 없었다.

당시의 여인들이 선 채로 오줌을 누는 풍습은 아주 일반적이었는데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나 작업 바지인 폼뻬를 입었을 때에는 오히려 서서 일을 보는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기모노차림을 했을때에는 뒷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다리를 벌린다음 무릎을 구부리고 옷자락을 옆으로 걸으면 되고 폼뻬를 입었을 경우에는 뒷몸을 크게 구부리고 다리를 벌린 다음 옷을 밑으로 내리고 일을 보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서 오줌 누는 습관은 팬티를 입지 않았던 시대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여성들도 팬티를 입게 되었고 서서 오줌 누는 습관은 차츰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여성들의 경우일 뿐이다. 태국 북부 라후라 지방에 사는 여성들은 지금도 선 채로 오줌을 누다.